

옛 그림 감상

- 조선시대 초상화 감상하기

글 | 이해경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박물관에서 만나는 초상화

박물관에서 옛 그림을 감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림을 만날 수 있다. 이 중에서 초상화는 주로 감상을 하기 위해 그려진 그림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려지게 된다.

관복을 갖춰 입은 모습으로 그려진 관리의 초상화는 나라에서 큰 공을 세운 이를 위해 그려준 초상화인 경우가 많은데, 한 본은 나라에서 보관하고 다른 한 본은 가문에 내려주기도 하였으며, 정승과 같이 높은 벼슬을 지내게 된 것을 기념하여 그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비해 평상복을 입은 초상은 좀 더 사적인 목적에서 그려진 것들이다. 또한 후손들이 영당(影堂 : 초상화를 모시는 작은 전각)에 모시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다.

아마도 초상화 속의 인물들은 몇 백 년이 지나 자신을 그린 초상화가 박물관에 걸려 얼굴도 모르는 이들의 감상 대상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원래의 제작 의도와 맥락에서 벗어나 있지만,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현재의 우리에게 과거를 만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된다. 해독하기 어려운 한자로 된 서책이나 고문서보다는 조선시대를 살았던 한 선비의 초상이 친숙하고 흥미롭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서직수 초상〉, 김홍도, 이명기, 1796, 비단에 색,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윤급 초상〉, 조선 18세기, 비단에 색,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초상화는 어떻게 그려졌을까?

‘터럭 하나도 같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니다.〔一毫不似, 便是他人〕’

조선시대 초상화를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이다. 터럭 하나까지 닮게 그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로 대신할 수 있다. 사람을 온전한 주인공으로 하는 초상화에서 대상을 닮게 그리겠다는 것은 가장 당연한 목표였다. 전

시를 하기 위해 초상화를 조사하다 보면 여러 점의 초상화를 보게 된다. 그런데 그림 속 주인공 대다수가 인상이 그리 좋지 못하며, 잘생기지도 않았고, 검버섯이나 사마귀, 사시(斜視), 심지어는 피부병까지, 웬만하면 표현하지 않아도 될 것도 자세히 그린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그려진 초상화를 보고 있노라면 종종 실제 주인공과 직접 만나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된다. 왜곡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것이 낫다는 생각으로 제작된 초상화는 생생한 사실성으로 인해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여러 번의 스케치와 배채(背彩)

주인공과 닮게 그리기 위해서 화가들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 어떤 특수한 방법을 사용했을까? 조선시대에 초상화를 그린 기록에는 『조선왕조실록』의 어진(御眞) 그리는 일부터 개인 문집속의 사대부 초상화 그리기까지 많은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살아 있는 대상을 앞에 놓고, 그와 똑같이 그려야만 한다는 의무감은 화가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것 같다. 조선 후기 초상화의 명수로 알려졌던 변상벽(下相壁)은 초상화를 일곱 번이나 고쳐 그리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다는 기록이 전한다. 화가들은 결과물이 되는 초상화를 좀 더 완벽하게 그려내기 위해 여러 번의 연습과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초본(草本)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초본이란 완성작을 그리기 전에 인물의 특징이나 자세, 채색의 효과를 미리 보기 위해 그려보는 습작이라고 할 수 있다. 완성작은 아주 얇은 비단에 그려지게 되며, 초본은 이 비단과 같이 반투명한 효과를 내는 기름종이(油紙)에 그려지게 된다. 초본은 보통 여러 점 만들어지는데, 하나의 초본에도 어깨선과 자세를 다르게 그린 여러 번의 스케치가 그려졌다. 배채란 뒤에서 색을 칠했다는 뜻이다. 보통의 그림은 종이나 비단의 앞면에만 채색을 하기 마련이지만, 초상화의 경우 좀 더 자연스러운 색을 내기 위해 화면의 뒤에서 색을 칠해서 색깔이 앞으로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효과를 사용하였다. 특히 얼굴색이나 관모(冠帽)의 각(角, 관모의 양 날개 부분)과 같이 자연스러우면서도 투

명한 느낌이 필요한 경우에 배채가 활용되었다.



그림왼쪽 :
(안집 초상) 및 뒷면에 배채한 모습

그림오른쪽 :
(명현화상) 중, 조선 18세기, 유지에 색,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초상화의 두 모습 - 초본과 정본(正本)

초상화의 제작 과정에서 그려진 초본은 보통 태워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종종 초상화의 초본과 완성작인 정본이 함께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초본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서 조선시대 초상화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새로운 자료를 제공한다. 조선 초 사대부인 최덕지(崔德之, 1384~1455)의 초상은 전신을 모두 묘사한 초본이 함께 남아 있어 관심을 끈다. 초본은 보통 가슴부위까지만 그려 얼굴 묘사에 주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덕지 초상 초본의 경우 정본과 완전히 동일하게 그려져서 흥미로운 뿐 아니라 자료적인 가치도 매우 높다.



(최덕지 초상) 및 초본, 조선, 비단에 색, 전주 최씨문중 소장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조선시대 초상화의 제작과정 중 '초본'에 초점을 맞춘 '조선시대 초상화 초본(草本)' 테마전시가 열리고 있다(2007. 7. 31~10. 28). 초본과 정본이 짝으로 남아 있는 채제공 초상(보물 제 1477호), 최덕지 초상(보물 제 594호)과 다양한 유지 초본의 양상을 보여주는 《명현화상》등이 공개되며, 조선시대 초상화의 제작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유지 초본부터 비단에 그린 완성본까지 8단계에 걸쳐 재현한 전시물이 함께 선보인다. 이 전시를 통해서 조선시대 초상화를 감상하는데 유용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단서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www)